제 17차 ACTS 신학포럼

The 17th ACTS Theological Forum

ACTS 신학과 로잔 운동

: 제4차 서울 로잔대회를 다녀와서

일시 : 2024년 10월 14일(월) 12:00~14:40

장소 : 본교 대강당

YouTube KR 를 통한 온라인 학회 진행(실시간)

ACTS 신학연구소

ACTS 아신대학교
ACTS UNIVERSITY

http://ti.acts.ac.kr

일정 (Schedule)

<2024년 10월 14일(월) 12:00~14:40>

12:00~12:20	개회 기도 및 'ACTS 신학 공관 선언문 '낭독	허 주 교수
12:20~12:50	'로잔 운동의 역사와 이해'	이명석 교수
12:50~13:00	사진 촬영 및 휴식	
13:00~13:50	제 4차 로잔대회 참석 피드백	정성국 교수 이한영 교수
13:50~14:30	대담 및 토론 (참석자들과 함께)	사회 : 허 주 교수 대담 : 이명석 교수 정성국 교수 이한영 교수
14:40	폐회	

우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음 항목을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믿음의 조항으로 고백한다. 우리는 초대교회 주요 신조들과 종교개혁의 대표적 신앙고백 및 복음주의 선언들의 신앙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내용을 믿는다.

1. 구약과 신약 정경 66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위한 최종적인 규범이다.

2.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한 하나님으로,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은혜롭고 선하신 뜻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신다.

3.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도록 되었으나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5.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성도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보혜사시다. 그는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시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인격으로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을 주신다.

6.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 성도가 이루는 그의 몸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 교회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워 주신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 성숙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7.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한 그가 명하신 대로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여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 땅 위에 확장하는 영적 공동체이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한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사명을 가진다.

8.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모든 죽은 자는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을 받아 의인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며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와 함께 새로워진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ACTS Statement of Faith

As the members of ACTS/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community, we here profess the following indispensable articles of faith pertaining to our belief and life. We believe in the core content of confessions contained in the major creeds of early church, Reformation and evangelical declarations.

1. The accurate and infallible Word of God as being the sixty-six canon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constitute the ultimate authority and norm for the faith and life of the saints.

2.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re one God, who are of one substance and equal in power and glory. The triune God creates, provides and saves according to His gracious and righteous will.

3.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only incarnated Son of God, is truly divine and truly human. Being born of the virgin Mary, He died on the cross as the atoning sacrifice and on the third day He rose from the dead and ascended to Heaven. On the last day, He shall come again from be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to completely consummate the Kingdom of God.

4. Humankind wa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for divine fellowship and to rule over all creation. However, due to the disobedience of the first man, Adam, and his fall, he was separated from God, the source of life, and was plunged under the dominion of sin and death. Likewise, in Adam, the entire humanity has become sinners and subject to eternal death, but those who hear the Good News and believe in Jesus Christ shall have eternal life through His unlimited saving grace.

5. God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the truth, who witnesses concerning Christ and is the Helper to the saints. He is the Spirit of adoption who, by calling

sinners to repentance, imparts regeneratio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until the glorious inheritance of the heavenly Kingdom. The Holy Spirit dwells in the saints and enables them to enjoy the enlightenment of the Word. He bestows the full power to serve and nurtures a mature transformation of personal character into the image of Christ for the ministry of God's kingdom.

6. The true Church is one holy apostolic universal Church, made of a body formed by the faithful saints united with Christ, through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Baptism and Eucharist are two sacraments instituted by Christ, the head of Church, and are the visible Word that must be continuously administered for the strengthening of faith and for spiritual maturity.

7. The primary mandate of Church is to offer a worship in Christ that is acceptable to God. It is also to form Christ witnessing community by making disciples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mong all nations as Christ has commanded. The church in the world is a spiritual community that expands God's ruling upon the earth against the authority of the evil spirit that opposes God. As a holy community that loves God and its neighbors, it holds a mandate not only of bear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edification of a just society, but also to carry out Christian love for the sake of the poor and the oppressed.

8. At the end of the age, the Lord Jesus Christ will return to the world in His glory. At that time, all the dead shall be raised and stand before God's judgment. The righteous shall enjoy eternal blessing and the unrighteous shall receive eternal punishment. In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the saints shall praise God forever and rule with the Lord over the renewed creation.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2015. 4. 15.

‘ACTS 신학공관(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神學共觀)’은 1998년부터 본교에서 추진해 온 공동연구작업으로서 ACTS의 신학적 입장과 선교적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천하려는 신학운동이다. ACTS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함’(=함께 봄)으로써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하는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기독교의 중심진리’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를 강조하고 전파하려는 운동이다. ‘기독교의 중심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선포하였고, 교부들과 교회의 교사들이 전승하였으며, 모든 역사적 신앙고백들 가운데 명시되어 온 핵심진리이다. 그것은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요약된다. 이 중심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로서(눅 24:25-27, 44-48; 요 5:39; 20:31; 딤후 3:15-17) 성경의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궁극적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ACTS는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점과 기초가 되는 이 중심진리의 우선적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2. 바른 신학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른 신학을 세우는 운동이다. 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주의 신학조차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사조 이래 합리주의 사상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를 경험과 이성의 잣대로 해석하고, 기독교를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의 개념들로 체계화하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보다 지엽적인 주제들만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 보수주의 진영의 일부 신학도 주요 교리들을 수호하고 변증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비평학의 해석방법론을 비롯하여 믿음의 전제와 상충되는 인본주의적·경험론적 방법론들을 차용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과 무관한 세부사항들을 놓고 무익한 공론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ACTS 신학공관’ 운동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전반적으로 중요시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현대 신학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운동이다.

3. 참 신앙인 양육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을 키워내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절실히 요구된다. 다원주의 시대라 일컫는 21

세기에 들어와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신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시되고 있다. 전 세계 교회는 과학주의적 세계관과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서 전통적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 교리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부패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큼 세속화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교리적 승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명목상의 고백만 있을 뿐 실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전인적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CTS는 이 중심진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을 올바로 제시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병행하여 신학과 신앙,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함이 통합된 성령 충만한 참 신앙인을 키워내려고 한다.

4. 교회연합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고백하는 모든 개신교파들 사이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운동이다. 성경은 교회가 동일한 신앙고백 위에서 일치와 연합을 힘써 이루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범세계적 교회연합운동은 신앙의 동질성보다는 기구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또한 신앙의 핵심이 아닌 부차적 교리의 입장에서 분리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은 중심진리에 대한 동일한 신앙고백 위에 세워져 왔고, 그들의 교리적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의 극심한 분열의 역사와 상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개교회-교단 중심의 경쟁적 확장이나 선교의 방식은 지양하고, 다른 교파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ACTS는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만연한 심각한 교파간 대립과 분열상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세계에 중심진리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5. 교회회복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개신교 교회의 교사들이 각 시대마다 올바르게 강조한 신학과 실천의 내용을 '기독교 중심진리'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수립하려는 운동이다. ACTS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공관하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함으로써 교회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것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신본주의-복음주의' 신학교인 ACTS가 오늘날 혼탁한 현대 신학의 시류와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려는 신학운동이다.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2015. 6. 3.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a joint research project which has been carried out since 1998. Its purpose is to clarify and articulate the theological position and missional task of ACTS. With a primary emphasis on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n all areas of theory and practice of Christian theology, ACTS intends to propose a way to apply and embody this truth in all aspects of Christian faith and life.

1.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committed to emphasizing and propagating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s the core truth proclaimed by Jesus Christ and his apostles, transmitted by the church fathers and teachers, and clearly stated in all historic confessions of faith. It can be summarized as the message of salvation which declares that one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sanctification by faith in the one and only Savior Jesus Christ who died and was resurrected for our redemption, and finally enter the eternal kingdom of God. This central truth is a grand theme that runs throughout the entire Bible (Luke 24:25-27; 44-48; John 5:39; 20:31; II Timothy 3:15-17) and serves as the ultimate criterion by which biblical revelation can be correctly interpreted. ACTS intends to emphasize the preeminent importance of the central truth, the starting point and foundation of faith that leads to salvation.

2. Sound Theology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committed to constructing a sound theology that promotes faith by presenting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n a simple and definite way. In the present, not to mention the liberal theology, even the conservative theology fails to present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explicitly. Since the Enlightenment, the liberal theology has interpreted the supernatural revelation of the Bible in light of experience and reason alone based on rationalistic line of thought and view of history. It has stereotyped Christianity as some fragmentary, abstract philosophical concepts, while it focuses on the peripheral rather than the essential themes of Christianity. Though some conservative theologies do defend and justify principal doctrines, there is a tendency to become engaged in futile academic discussions around the particulars that are irrelevant to the core of Christianity. They tend to borrow humanistic and empirical methodologies, such as critical hermeneutical methodology, that conflict with faith premises. In light of the modern theologies that either neglect or distort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t is imperative that a movement such as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should emerge.

3. True Believer Nurturing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nurtures true believers through the communal "faith movement." In light of the reality of the present day church, this movement is greatly needed. In the 21st century, the so-called "age of pluralism," the orthodox doctrines and theology are neglected in an unprecedented manner. The global church, confronted by the scientific worldviews and challenges of secularism, is on the verge of losing orthodox faith. The majority of the Korean church today, despite its heritage of evangelical faith based on theologically orthodox doctrines, has become secularized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continually accused of moral corruption. The primary reason for such accusation is the failure of the Korean church to properly demonstrate a transformed holistic life which bears fruit of repentance through salvation by faith. She has reduced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to doctrinal assent which leads only to nominal confession. In response, by presenting both the content of salvation—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and the communal "faith movement," ACTS intends to nurture true Spirit-filled believers who can integrate theology and faith, doctrine and practice, and faith and action.

4. Church Unity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committed to establishing a unified church in Jesus Christ in collaboration with all Protestants who confess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The Bible teaches us to be of one accord and unity built upon the same confession of faith. However, the global ecumenical movement of the 20th century had deviated from biblical teaching by prioritizing institutional mergence rather than homogeneity of faith. On the other hand, the attempts to justify divisions based on secondary, not core, issues related to faith, also are contrary to biblical teaching. Since the Reformation, the Protestant denominations have been built on the same confession of faith in terms of the central truth and their doctrinal differences were not a matter of essence. The Korean church in the 21st century has the task of overcoming the history of wounds resulting from intense dissensions of the past century. The local church/denomination-oriented competition in terms of expansion needs to be subdued, and respect and collaboration between denominations should be encouraged. Therefore, ACTS intends to overcome the serious problem of denominational conflicts and schisms prevalent in the Korean church and to help contribute to building a unified church with the central truth both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5. Church Renewal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sis" is committed to establishing theology that revives the church. It is dedicated to research in both theology and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as rightly emphasized by the Protestant church teachers in each era. ACTS intends to contribute to church rest oration as it applies and embodies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n all theoretical and practical areas of Christian theology. It is this theology movement that ACTS, a "theocentric-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founded for the "evangelization of Asia," is committed to achieve in the face of the contemporary reality of the turbid state of theology and the secularized condition of the church.

로잔대회의 역사와 이해

이명석 교수

I. 들어가는 말: 작용과 반작용

우리는 종종 인문학적이며 신학적인 토론에 있어서 물리학의 예를 설명으로 드는 것이 오히려 전후 사건의 전개와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경우를 보게 된다. 뉴턴의 제3 운동법칙은 이렇게 사물의 운동 원리를 설명한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 이 법칙은 흔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법칙은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도 동일한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이 법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사회현상의 상호작용에도 적용되며,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는 원리로 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로잔운동도 그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잔대회를 참가해 보면서 대회를 통해 발행된 문서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역대 로잔대회에서 발생한 진동과 파급력을 다 가늠할 수 없음을 인식했다.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차 로잔대회는 그간의 로잔대회에서 발휘된 복음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주는 메시지로 인해서 그간의 대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운동에너지가 전달되어오는 대회라고 하겠다. 이번 ACTS 신학포럼을 통해서 그동안의 로잔대회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

필자는 본 글에서 로잔운동이 탄생하게 된 교회내외적인 배경과 역사를 대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 안에서 나타난 로잔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신학포럼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일차적인 자료는 로잔운동에서 발행한 선언문을 기초로 하고, 이차자료로는 학술저널에 실린 소논문과 신문기사들 그리고 로잔운동이 발행한 서적들을 기초로 하였다.

II. 로잔운동이 태동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전개과정

1974년 제1차 로잔대회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역사적 배경에서 그 맥락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맥락과 교회의 신학적인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1. 1, 2차 세계대전과 기독교의 역할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이 가운데 특히 기독교 전통을 가진 국가들끼리 전쟁의 주요 참전국으로서 대립을 했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기독교와 복음의 가치가 도전받는 현실을 부각시켰다.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기독교 국가들 간의 충돌이었으며, 이는 기독교가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과 전통이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고, 교회는 급격한 신뢰 상실을 경험했다. 이는 전후 세계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그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특히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신학적, 선교적 사명이 대두되게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냉전이 전개되며, 세계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 진영에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가 억압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 기독교는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한 영적 전쟁의 도구로 인식되기도 했으며, 빌리 그래햄과 같은 복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 전파를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1)]

철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이데올로기적 분단은 기독교 선교의 장벽을 세우는 또 다른 도전이 되었고, 특히 냉전 시대에 들어서며,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서구와 공산주의 진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다. 특히, 1962년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쿠파 위기에 이은 핵전쟁의 공포는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신학적 성찰을 포함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고 세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세계 복음화의 시급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인류가 만든 핵무기로 인해 언제든 멸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새로운 선교적 전략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맥락은 빌리 그래햄과 같은 리더들이 복음 전파를 위한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였다. 결국 로잔운동은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배경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태동하게 되었다.

2.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립

이뿐 아니라 소련과 동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간주하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특히 기독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심각한 박해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복음 전파가 어려워졌고, 기독교인들은 강력한 억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복음 전파와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빌리 그래햄과 같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와의 대립을 단순한 정치적 대립으로 보지 않고, 기독교 신앙과 무신론 간의 싸움으로 인식했다. 공산주의의 확산은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서구 중심의 선교 전략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서구 국가들이 공산주의 세력과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이들 지역에서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선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복음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세계 복음화 전략을 재편성하는 데 주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변화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급격히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의 불균형현상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특히, 북반구(서구)와 남반구(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며 흑백의 인종 갈등과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 교회는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세계 복음화와 함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특히, 존 스토트와 같은 복음주의 리더들은 교회가 전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복음주의자들이 세계적으로 연합하여 복음

---

1) Uta A. Balbier, “The World Congress on Evangelism 1966 in Berlin,” *Journal of American Studies*, (2017), 51/4, 1171−1196.

전파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복음전도대회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4. 로잔운동이 탄생하게 된 신학적 배경

로잔운동이 탄생하게 된 신학적인 배경에는 1960년대 급격한 변화 속에서 특히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그 안에서 진행된 선교 운동,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이 느낀 불만과 불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는 주로 유럽과 북미의 선교 지도자들, 즉 약 1,200명의 선교 지도자들 중 90%가 유럽과 북미 출신이었다. 이점에서 Doug Birdsall은 에든버러 대회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북반구에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었다. 선교는 주로 '서양에서 나머지 세계로'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다."[2] 하지만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때와는 사뭇 다르게 세계 기독교의 무게중심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로 크게 이동하고 있었다.

이 시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1961년 뉴델리에서 열린 WCC(세계교회협의회) 대회에서는 국제선교협의회(IMC)를 WCC와 통합하여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로 개편하는 변화를 겪고 있었다. 원래 IMC는 WCC와 통합 후 교회적으로 세계선교의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WCC의 한 분과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다. 이 와중에 WCC의 회원이 아닌 IMC의 복음주의 단체들은 제외되고 말았다. 또한 ‘세계 복음화’라는 주요 과제가 WCC안에서 이차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있었다.[3]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WCC의 선교 신학이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느끼고, 이러한 WCC의 신학적 조류에 반대하여 1966년 미국 휘튼 대학에서 모여 현대 선교의 방향성을 논의하게 되었다. 1966년 이전에 복음주의자들은 초교파 해외선교협의회(International Foreign Mission Association: IFMA)와 복음주의해외선교협의회(The Evangelical Foreign Missions Association: EFMA)와 같은 주로 개별적인 조직을 통해 대사명(Great Commission)을 실천해 왔다. 그러나 1966년 이후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주의 관점을 더욱 명확히 하고, 공통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국제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휘튼에서 IFMA와 EFMA가 공동으로 주최한 교회의 세계적 선교에 관한 대회(1966년 4월 9일~16일: 휘튼 대회)는 자유주의 및 에큐매니칼 운동에 대한 대안으로서, 복음주의자들이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모임이었다.[4]

휘튼대회에 이어 같은 해에 열린 베를린 세계복음화대회(World Congress on Evangelism)는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는 역할을 했다. 복음주의자들의 대변지인

---

2) Doug Birdsall, “Lausanne ’74,” https://lausanne.org/global-analysis/lausanne-74

3)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202.

4) 휘튼대회에서 결성된 휘튼 선언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며, 복음 전파가 모든 선교 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WCC의 선교 신학이 점차 인간화(humanization)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았고, 이에 반해 복음주의 선교는 명확한 구원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휘튼 선언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강조하며, 선교 활동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는 WCC의 세속적 이슈에 대한 초점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으며,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휘튼 선언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점은 이후 로잔대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된 주제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사상과 연결된다. James A. Scherer, *Gospel, Church, & Kingdom: Comparative Studies in World Mission Theolog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7), 162-167.

“Christianity Today”의 창간 10주년 기념행사로 세계복음화회의가 1966년 10월 25일에서 11월 4일까지 베를린에서 “One Race, One Gospel, One Task”의 주제로 개최되었다.[5] 여기서 빌리 그레이엄은 베를린 세계복음화대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이 대회의 목적 중 하나는 교회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남은 세기 동안 교회의 복음 전도와 선교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베를린 세계복음화대회는 WCC의 선교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거리를 두고,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선교 전략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6] 이 두 대회는 복음주의자들이 선교 신학의 기초를 성경적 원칙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촉발시켰으며, 교회의 선교 사역에서 복음 전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베를린 대회는 당시의 WCC 선교 신학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비판을 반영하며, 새로운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행사로 평가받는다.[7]
이에 반하여 비슷한 시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1968년 웁살라에서 열린 제4차 WCC 총회를 통해 구원을 전통적인 복음적 의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화(humanization in Christ rather than salvation)”라는 목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중심의 전통적인 선교 신학이 점차 세속적인 방향으로 바뀌었고, 세상의 갈등과 문제들이 선교의 중심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 독일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인 신학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특히 튜빙겐(Tübingen)대학의 피터 바이엘하우스(Peter P. J. Beyerhaus)와 같은 선교신학자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복음주의자들의 우려는 1973년 방콕에서 열린 CWME 대회에서 더욱 현실화되었다.[8]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이 방콕 CWME 대회는 구원을 단순한 개인적 구원이 아닌 사회적 불의, 억압,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정의하면서, 구원이 “사회 정의, 인종 평등, 경제적 해방”을 위한 투쟁 속에서 경험된다고 사회적인 면을 강조했다.[9] 이러한 사회적 구원의 개념은 라틴 아메리카와 남반구에서 유행한

---

5) Roger Charles Bassham, *Mission Theology: 1948-75 Years of Worldwide Creative Tension Ecumenical, Evangelical and Roman Catholic*,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9), 220.
6) “This is one of the purposes of this Congress on Evangelism: to help the Church to come to grips with this issue and to come to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evangelistic and missionary responsibilities of the Church for the rest of this century.”: Why the Berlin Congress?, *CHRISTIANITY TODAY*, OCTOBER 11, 1966 Vol 11/3, https://www.christianitytoday.com/1966/10/why-berlin-congress/: 2024년 10월 1일 접속
7) 휘튼대학 출신이 아신대학교의 태동에 중요한 기여를 많이 했다. 빌리 그래햄의 부인 루쓰 그래햄, 그리고 아신대학교 초대 학장인 마삼락 박사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복음주의 계열의 ‘크리스챠니티 투데이 (Christianity Today)’잡지의 초대 편집장이자 복음주의 신학의 대변자로 알려진 칼 헨리(Carl Henry) 박사이다. 칼 헨리는 ACTS(아세아연합신학교)의 설립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 칼 헨리는 수시로 ACTS 설립 초창기에 와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당시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건전한 복음주의적인 의식을 심어 주었다. 비록 그는 한국의 혹독한 겨울 기후 때문에 학장직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늘 자신을 설립강사(founding lecturer)로 자처하였다. 박찬호, 『칼 헨리』, (서울: 살림, 2006), 254-257; 이명석, “아세아연합신학교의 선교정책과 선교적 과제” 농촌과 목회 (2024) 제102호.
8) CWME, Salvation Today: Bangkok 29th December 1972-8th January 1973, (Geneva: WCC, 1972), 1-36.
9) WCC. *Bangkok Assembly 1973: Minutes and Report of the Assembly of the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December 31, 1972 and*

해방 신학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그런 이유로 방콕 대회의 이러한 사회적 초점은 일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긴장감은 후에 복음주의 그룹들이 성경적 기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구원 이해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를 필요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온 땅이 주의 목소리를 들으라(Let the Earth Hear His Voice)"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이다. 로잔대회는 전 세계에서 2,7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150개국에서 모였으며, 당시로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범위의 선교 회의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10)]

5. 빌리 그래햄과 존 스토트의 우정과 공동 리더십[11)]

로잔대회의 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대적인 배경이외에도 그 대회를 주도한 복음주의진영의 인물들이 로잔대회의 시작을 가능케 하였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로잔대회의 기획자이었던 빌리 그래햄은 핵심 촉매제 역할을 했다. 빌리 그래햄은 1970년대에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적 변화 속에서 기독교 선교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글로벌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잭 데인(Jack Dain) 주교와 존 스토트(John Stott) 박사와 같은 저명한 리더들과 협력이 절실함을 직감했다. 특히 빌리 그래햄과 존 스토트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는 복음주의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두 인물의 만남은 1955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빌리 그래햄이 선교를 이끌고, 존 스토트가 그의 주요 협력자로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평생 우정을 이어갔고, 이는 후에 로잔 운동(Lausanne Movement)의 발판이 되었다. 특히 영국 성공회 교회 사제 출신의 존 스토트는 로잔 언약의 주요 작성자로서 대회의 신학적 기초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알려진 바로는 스토트는 처음에는 로잔대회의 참여를 꺼렸지만, 빌리 그래햄과의 오랜 우정에 바탕을 둔 그의 기여는 대회의 정신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January 9-12, 1973.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73), 113 방콕공식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Human spirituality, one might say, is the way in which man, in the freedom of his self-transcendence, seeks a structure of ultimate meaning and sacredness within which he can fulfil or realise himself in and through his involvement in the bodily, the material, and the social realities and relations of his life on earth. This means of course that if the structure of meaning and sacredness which men choose is false, a false spirituality results and instead of self-fulfilment, there is self-disintegration ..... Similarly, the primary concern of the Christian mission is also with the salvation of human spirituality, with man's right choices in the realm of self-transcendence and with structures of ultimate meaning and sacredness - not in any pietistic or individualistic isolation, but in relation to and expressed within the material, social and cultural revolutions of our time." 113.

10) 김성환 교수는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선교”라는 글에서 ACTS의 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김성환,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선교”『로잔운동과 선교』, (서울: 한국로잔위원회, 2014), 113.

11) Birdsall, “Lausanne ’74” https://lausanne.org/global-analysis/lausanne-74

III. 로잔운동이 갖는 특징

빌리 그래햄은 로잔 운동이 "중앙의 통제" 없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운동(movement)”으로 남기를 강력히 원했다.[12] 그는 전 세계의 복음주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세계 복음화를 논의하고 실천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통제된 조직이나 기구화된 조직이 아닌 하나의 운동(movement)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로잔대회는 이러한 그의 비전에 따라, 복음주의의 신학적 깊이와 실천적 열정을 결합한 글로벌 선교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운동은 소위 “로잔의 정신”이라 불리는 겸손, 기도, 학문적 연구, 협력, 그리고 희망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로잔운동의 태생적 특징이 관리, 통제, 감독의 조직적 형태를 가진 WCC와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로잔대회는 이번 제4차 대회에서도 보듯이 운동에 참여하는 선교단체나 집단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더 강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것도 다분하다. 이런 경우 로잔운동의 본질인 복음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 또한 다분하다. 하지만 로잔운동은 다양한 집단의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본래의 사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존 스토트는 로잔대회를 "짧은 불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운동"으로 평가했다.[13] 이는 로잔대회가 단순히 한 차례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 세계 선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잔운동는 1974년 제1회 로잔대회이후 1989년 마닐라 대회와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를 포함한 여러 후속 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로잔 포럼, 전 세계적 작업 협의회 등 다양한 회의를 통해 선교 전략과 신학적 토론을 계속 이어가면서 현재까지도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선교 전략과 신학적 지침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1. 로잔 언약과 그 의의[14]

로잔대회는 단순한 선교 대회를 넘어,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을 통해 복음주의 선교의 신학적 토대를 세웠다. 로잔언약은 복음주의 선교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문서로, 총 15개의 항목에 걸쳐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15] 그러나 이 신학은 단순히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와 현대 선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발전되어 왔다.[16]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은 대회에서 발표된 가장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로, 복음주의 신학의 주요 문서로 평가받는다. 이 언약 문서는 빌리 그래햄이 희망했던 성경적 선언으로, 존 스토트가 주요 설계자로서 작성하였다. 존 스토트는 로잔 언약에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안했다. 로잔대회 직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콕 CWME 대회에 참가했던 스토트는 그곳에서 오히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직시하게 되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

12) 최승근, “로잔 세계복음화운동의 선교신학적 고찰과 전망,”「Mission Insight」, 231-32
13) Birdsall, “Lausanne ’74” https://lausanne.org/global-analysis/lausanne-74
14) http://www.lausanne.org/en/documents/lausanne-covenant. html
15) 최승근, “로잔 세계복음화운동의 선교신학적 고찰과 전망,” 231-32.
16) 조종남, “로잔의 역사와 신학”,『목회와 신학』10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1989, 46

진영에서 가장 실효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2. 로잔대회의 핵심 주제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로잔대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스토트는 로잔언약의 전체 문구를 성공회 사제답게 차분한 어조로 분명하게 전체적으로 다듬었다고 한다. 결국 스토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로잔 언약은 전인적 사역을 강조하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상호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두 가지를 모두 기독교인의 의무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복음주의자들은 단순한 개인 구원 뿐 아니라 사회 정의와 인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열었다. 로잔언약은 다음 대회들의 신학적 기초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① 성경의 절대적 권위

로잔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이다. 로잔언약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무오하며, 그 안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는 복음 전파의 기초로 작용하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로잔의 선교 신학은 하나님과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제하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② 복음전도의 우선순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로잔언약에서 교회가 전파해야 할 복음은 죄에서의 용서와 성령의 자유함을 선물로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이것은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구원을 강조한 WCC의 1973년 방콕대회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방콕대회는 사회적 참여와 인간화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로잔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속 사역을 강조하며 이러한 입장을 배제하고 있다.

③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관은 1966년 베를린 세계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68년 싱가포르 대회, 1969년 미니애폴리스와 보고타 대회, 1971년 오스트레일리아 대회 등을 거치며 더욱 명확해졌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로잔언약의 기안자였던 존 스토트가 있다. 그는 1966년 베를린 세계선교대회 이후, 마태복음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이 단순히 복음적 책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또한 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 그는 "대위임령 자체가 복음적 책임과 아울러 사회적 책임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the actual commission itself must be understood to include social as well as evangelistic responsibility)"고 강조하며,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이 복음 전도의 동반자(a partner of evangelism)임을 분명히 했다.[18] 하지만 스토트는 이 두 요소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이들 사이에 중요한 구분점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즉, 스토트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동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두 가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수단이 되거나 그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

17) 존 스토트는 1968년 WCC 웁살라 대회에 자문위원(adviser)으로 참석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안희열, “[제3차로잔대회기획] 로잔운동의 역사적 배경,” 크리스천투데이, 2010년 10월 6일자,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1240, 2024년 10월 2일 접속

18) Bassham, *Mission Theology*, 232.

하고 있다.[19] 이러한 입장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며, 각각이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스토트의 통전적 선교관을 잘 보여준다. 존 스토트의 이러한 신학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파송에 근거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로잔 대회가 채택한 15개 항목 중에서 제5항(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적시되었다.

>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요,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20]

그러나 존 스토트는 WCC의 1968년 웁살라 대회와 1973년 방콕 대회의 사회-정치적 해방이나 구원의 인간화(humanization)는 거부했다. 그는 인간화와 발전과 전체성과 해방과 정의의 목표들을 그리스도인들 이 참여해야 할 활동들로서는 긍정했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공한 구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부정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대한 신학적 혼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④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책임

로잔대회에서는 교회를 복음 전파의 대리자, 즉 "복음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로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21] 더불어, "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으며(at the center of God's cosmic purpose),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다(his appointed means of spreading the Gospel)"[22] 라고 언급하여 교회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로잔대회는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음 전파와 화해의 대리자로 분명히 선언하면서, 교회의 영적 본질과 성경에 대한 충실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영적인 실체이며, 문화를 초월하여 성경적으로 이해되고 평가된다. 교회의 유효성은 영적 특성과 성경에 대한 신실함에 의해 결정된다. 교회는 복음 전파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필수적이고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위한 목적을 지닌다.[23]

---

19) "As partners the two belong to each other and yet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Each stands on its own feet in its own right alongside the other. Neither is a means to the other, or even a manifestation of the other. For each is an end in itself." Bassham, *Mission Theology*, 232.

20) https://lausanne.org/ko/statement/lausanne-covenant-ko: 접속일자 2024년 10월 2일

21) Howard A. Snyder, "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Official Reference Volume, Papers and Responses*,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4), 352.

22) https://lausanne.org/ko/statement/lausanne-covenant-ko

23) "The Church is God's creation, spiritual fact, cross-culturally valid, biblically understood and evaluated, validity determined by the spiritual qualities and fidelity to Scriptures, God's agent of evangelism and reconciliation, essential, eternal, divine revelation, and purpose of to glorify God." Howard A. Snyder, "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 *Let the*

이에 비해, 선교 기관은 사람의 조직체로서, 교회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한 일시적이고 한정된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본연의 선교적 목적에 더욱 충실할 것을 강조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혼합주의와 만인구원론에 대한 반박

로잔언약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확고히 하며, 신학적 혼합주의나 만인구원론을 배격한다. 이러한 입장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구원 경로를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함을 강하게 지지한다. 로잔언약은 복음주의 신학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 세계에서의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전 세계 교회가 그 사명에 충실하도록 요청한다. 결과적으로, 로잔언약은 복음주의 신학의 기본 틀 안에서 현대의 선교적 도전과 상황을 반영하여, 복음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선언이다.

⑥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Groups' (UPG) 선교

로잔대회의 또 다른 기여는 선교에 있어서 미전도 종족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선교 패러다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데 있다. 제1차 로잔대회 때부터 참가한 랄프 윈터 박사는 당시까지의 선교가 주로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많은 종족-언어학적 민족 그룹들이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6,000개의 민족 그룹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이후 전 세계 선교 단체와 신학교, 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선교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개념은 세계 각국에 교회가 설립된 것을 넘어,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민족 그룹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로잔언약 9항은 인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27억 이상의 인구가 아직도 복음화 되지 못했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이토록 많은 사람을 아직도 등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로잔언약 9항)" 이는 전 세계 선교 단체와 교회가 선교 전략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89년 7월 마닐라에서 열린 로잔 II 대회 개회식에서, 아르헨티나 태생의 미국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Luis Bush)는 10/40 윈도우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의 핵심은 적도 북쪽의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의 사각형 창 모양의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빈곤, 저개발, 그리고 비기독교 세계 종교들이 지배적인 곳이다. 부시는 이 지역이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아 세계 선교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념은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2000년까지의 선교 전략을 이끄는 핵심 틀이 되었다. 하지만 루이스 부시의 10/40 윈도우 개념은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첫째, 일부 복음주의 작가와 선교사들은 10/40 윈도우가 윈도우 지역 외의 선교를 소외시키고, 서구 중심적 접근을 취하며,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신자들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10/40 윈도우 개념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 외교 정책의 정치적 지리와 불편하게 맞물리며, 중동과 이슬람을 문제 지역으로 지목했다. 인류학자이자 신학자인 마이클 린키위치(Michael Rynkiewich)는 이 개념들이 미국 복음주의의 군사적, 조직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가 결합된 세계관과 공명한다고 비판했다. 셋째, 윈도우의 인류학적 기초, 즉 민족, 언어, 종교, 계층 및 지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미전도 종족'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문화

---

earth hear His voice: official reference volume, papers and responses,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4), 339.

지리학자 주 후이 주디 한(Ju Hui Judy Han)에 따르면, 이러한 "인종적 분류학"은 현대 사회과학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4]

IV. 역대 로잔대회에서 새롭게 발전된 주제들: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학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역공학)은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기존 제품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거나, 재현 및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문서로 정리된 각 대회의 결과물이다. 그 당시의 회의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이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얼마나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를 했으며 불만족했을지 다 가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서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의 복음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상황을 역신학화(Reverse Theologizing)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담겨있다. 다음에 서술하는 역대 로잔 세계복음화에 대한 분석은 그러한 시도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1. 1989년 제2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마닐라)

제2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1989년 마닐라)는 1989년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으며, 4,300명의 참가자들이 173개국에서 모여 당시로서 가장 큰 복음주의적 모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대회는 1974년 첫 로잔 대회의 정신을 계승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헌신을 담은 마닐라 선언문(Manila Manifesto)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복음 전도의 중요성과 함께 글로벌 선교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복음주의 진영의 전 세계적 선교 운동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25]

이 대회의 영향은 특히 한국 선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1989년은 한국 교회가 선교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로, 선교한국과 같은 단체들이 이 시기의 여파로 등장했다. 로잔 대회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선교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타문화 선교와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마닐라 선언문에서 강조된 글로벌 선교 전략은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많은 한국 선교단체들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따라서 제2차 로잔대회는 한국 선교 운동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한국 교회가 타문화권과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한 선교에 보다 집중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닐라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3 개의 주제로 행사가 이뤄졌다.

---

24) Melani McAlister, The Kingdom of God has no borders. A global history of American evangelic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chapter 8; Michael A. Rynkiewich, “Corporate metaphors and strategic thinking: ‘The 10/40 Window’ in the American evangelical worldview,”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5/2 (2007), 232; Ju Hui Judy Han, “Reaching the Unreached in the 10/40 Window: the missionary geoscience of race, difference and distance,” in Mapping the End Times, (eds.). Dittmer 183-207: Hannah de Korte and David Onnekink, “Maps Matter. The 10/40 Window and Missionary Geography”, *Exchange*, 49(2), 110-144. https://doi.org/10.1163/1572543X-12341558 에서 재인용.

25) “High Hopes for Lausanne II,“ *Christianity Today*, February 17, 1989: https://www.christianitytoday.com/1989/02/update-high-hopes-for-lausanne-ii/ 2024년 10월 2일 접속.

첫째로, "모든 교회(The Whole Church) 구성원들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라"는 선언은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지역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이종윤 목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중요성(The Primacy of the Local Church in World Evangeliz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특히 평신도의 선교 사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평신도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불신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 자원임이 강조되었다.[26] 이러한 관점에서 마닐라 대회는 평신도 선교의 효율성과 일터 사역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대회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성직자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 평신도들도 복음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로, "모든 복음(The Whole Gospel)을 전파하라"는 선언은 성경에서 제시된 다양한 선교적 사역을 복음 전파에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2차 로잔대회에서 작성된 마닐라 선언(Manila Manifesto)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선언문은 "하나님은 전 세계에 전체적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전체 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다. 모든 기독교 공동체 회원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복음 전파와 봉사 활동에 헌신해야 한다."고 밝히며,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죄와 상실의 문제, 타문화권에서의 복음 전도, 타종교와의 도전, 그리고 구원에 대한 신학적 논의 등을 포함하여, 복음 전파의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복음화 사역에서 교회 공동체 간의 협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복음 전파를 단순한 설교나 전도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맥락을 고려한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선교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The Whole World)"는 선언은 복음화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선언은 도시선교, 현대화의 영향력,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복음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제시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선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논의하고, 선교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2차 로잔대회에서 특기할 사항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제에 맞게 425개의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각 워크숍은 복음화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이 대회가 세계복음화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고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2010년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케이프타운)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전 세계 198개국에서 모인 약 4,000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이 대회는 1910년에 개최된 에든버러 세계복음화대회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었다.
특히 케이프타운 대회는 "세상과 자기를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을 표어로 삼고,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갈등 속에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랜 기간 아파테이드(Apartheid)라는 인종 차별 정책으로 인해 분열된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에 더욱, 이 대회에서 인종적 화해와 치유의 필요성은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

26) J. D. Douglas,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69-72.

남겼다.
세계 교회적 맥락에서 제3차 로잔대회는 복음주의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대회였다. 이 대회는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에서 처음으로 제시되고, 제2차 마닐라 대회에서 재확인된 로잔운동의 핵심 정신인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한다(The Whole Church Brings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했다. 이 대회에서는 앞서 열린 두 대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통전적 선교’(Integral mis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한 성경적 계시는 복음 전도와 세상에의 참여를 명령하고 이끌어 나간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로잔 운동이 단순한 선교 운동을 넘어, 교회가 세상과 연결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제3차 로잔대회에 한국에서 약 20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국제 선교 운동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케이프타운 대회 이후 한국에서 결성된 로잔 교수회와 로잔 동아리는 로잔 운동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신학적, 실천적 차원에서 한국 교회의 선교적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특히, 로잔 교수회는 신학교와 학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로잔 운동의 신학적 토대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로잔 동아리는 대학과 교회 내에서 평신도와 신학생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각종 강의와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통전적 선교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다. 다음은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논의된 세계복음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① 역사적 연속성 및 사랑의 서약
제3차 로잔대회는 제1차 로잔대회와 제2차 마닐라 대회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선교의 동기가 사랑임을 선언하는 "사랑의 서약"을 10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서약은 모든 복음 전파와 선교 활동의 중심에 사랑이 있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더욱 심화시켰다. 케이프타운 대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한 통전적 선교(Integral mission)를 강조하며, 사회적 정의와 복음 전파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복음의 사회적 차원을 새롭게 조명한 중요한 발전이었다.

② 디지털 시대의 선교와 일터 선교에 대한 강조
제3차 대회는 현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온, 오프라인 선교 대회를 동시에 진행하여,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대회였다. 이는 기술 발전을 활용한 선교의 혁신을 보여주었으며, 디지털 미디어와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 또한, 일터 선교는 대회에서 특별히 강조된 주제 중 하나였다. 일터는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과 주로 만나는 공간으로서, 복음 전도와 변혁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이 그들이 일하는 곳을 선교지로 받아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터 사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되었다.

③ 장애인에 대한 포용과 에이즈와 HIV에 대한 통전적 응답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포용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대상임을 상기시키며,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그들을 위한 선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HIV와 에이즈는 주목받은 주제로, 이 위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대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바탕으로 HIV 감염자들과 그 가족을 돌보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④ 미전도 종족과 미접촉 종족 선교와 어린이와 차세대에 대한 강조

케이프타운 선언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닿지 않은 미전도 종족과 미접촉 종족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교회의 선교적 자원이 이들을 위해 더욱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새로운 세대인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왜냐면, 이들이 바로 교회의 미래이며, 영적 양육과 보호, 복음 전파의 주요 대상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되었다.

⑤ 신학교육과 선교의 재평가

대회는 신학교육이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전통적인 신학교육 모델이 현대의 복잡한 선교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신학교들이 보다 선교 지향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로인해 한국교회에서도 각 신학교의 로잔교수회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로잔동아리가 형성될 수 있었다.

⑥ 환경 보호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은 대회의 주요 주제 중 하나였다. 대회는 기독교인들에게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가지며, 지속 가능한 소비와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였다. 제3차 로잔대회는 세계 복음화와 선교의 다양한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다룬 중요한 대회였으며,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제4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서울-인천)[27]

제4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서울-인천)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필자를 비롯하여 아신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거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로 참석하였다. 제4차 로잔대회는 제1차 로잔대회와 제2차 마닐라 대회를 계승하며,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한다(The Whole Church Brings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라는 로잔운동의 핵심 정신을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로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국가주의와 패권 경쟁의 증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초국가적, 보편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전쟁과 대립이 증가하는 세계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특정 국가의 이익이나 일부 지역의 세계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더 큰 비전을 품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된 경제 양극화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섬김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부담도 교회가 져야 함을 인식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창조세계 돌봄을 신앙의 중요한 책무로 삼으며,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에 교회가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오후 프로그램으로 25개의 과업(GAPS) 형태로 협업 세션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 LGBTQ와 같은 사회적, 도덕적 이슈들에 대한 교회의 대응

---

27) 제4차 로잔대회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발제자들에 의해서 논의될 것이므로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① 세계적인 전쟁 상황과 교회의 역할

제1차 로잔대회에서 남미의 르네 파디야와 사무엘 에스코바, 코스타스 같은 이들이 냈던 목소리는 로잔의 방향을 새롭게 전개했다. 이번에도 르네 파디야의 딸인 루쓰 파디야 드볼스트(Ruth Padilla DeBorst)의 설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가 언급한 전쟁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기지원 발언과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쓴 것이 일부 참석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다. 결국에는 루쓰가 전체 참석자들에게 사과편지까지 쓰는 상황에 도달했다. 여전히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말 한마디를 고르는 것에서도 자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대회 내내 잡음이 이어졌다. 세계평화와 정의는 여전히 로잔 안에서도 풀어내기 쉽지 않은 주제였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9월 28일, 로잔 마지막 날에 대회장인 마이클 오가 했던 연설은 “벌과 파리(bee and fly)”에 관한 메타포어가 중심이었다. 벌은 향기로운 꽃을 찾아가서 화분을 옮기고 생명을 낳는다. 반면 파리들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을 찾아간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간에 긍정적인 면을 더 살피는 협력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파리가 아닌 벌이 되어달라는 호소였다. 마이클 오의 연설을 듣는 참석자들은 대부분 그가 말하는 “벌”이 누구를 의미하며 “파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단, 하나님의 피조물인 파리도 생태계에서 죽은 시체를 처리하여 자연의 순환을 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데기를 생산하는 매개체이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서로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상호존중의 자세가 바로 운동의 연속성을 가져다 오는 것이다.

② 한반도 통일과 평화

이번 제4차 로잔 대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한반도 통일과 평화 증진을 위한 세계적인 관심을 강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분단 상황을 고려한 선교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목요일 저녁에는 한국교회사 140년을 돌아보는 “열두 돌”공연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상황과 기독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보게 해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필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은 외국인 참석자들도 그 공연을 보고서야 비로소 한국 기독교인들을 고난의 깊이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마지막 폐회때 대회장인 이재훈 목사와 마사누리 쿠라스와 박사와의 공동 성찬집례 모습은 연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 세계 교회에 전했다고 본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에서 봤을 때 이번 대회에서 한반도에 관한 의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어 보였다. 일단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의 이슈보다는 대회장 밖에서 시끄럽게 들리는 극보수 한국 기독교인들의 로잔대회에 대한 몰이해와 억지스러움이 더 크게 귓전에 들렸을 것이다.

③ 성적 표현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 기준의 변화

제3차 로잔대회(2010, 케이프타운)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규정하며, 성적 순결과 결혼의 성경적 기준을 강력히 옹호했다. 반면, 제4차 로잔대회(2024, 서울)에서는 성적 표현과 LGBTQ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화하였다. 서울 선언에서는 성경적 결혼의 정의를 유지하면서도, Gen Z 세대의 더 개방적이고 질문하는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LGBTQ 문제에 대해 보다 섬세하고 포용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문화적 변화와 글로벌 사회에서의 윤리적 논쟁에 대한 교회의 응답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인을 교회 리더십과 선교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면, 이번 서울 대회에서는 LGBTQ 이슈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적 표현과 결혼의 성

경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접근되어야 할지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해법이 제시되었다.[28]

④ 창조세계 돌봄과 환경 문제

창조세계 돌봄(creation care)은 이번 대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교회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필자는 영국에서 온 Dave Bookless의 주도하는 "창조세계 돌봄 GAP"에 참석하였다. 이 모임에서 로잔 운동의 환경 보호 연대(Collaboration)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윤리적 책임을 질 것을 참가자들에게 격려했다. Bookless는 국제 아로샤(A Rocha) 운동의 신학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관심사를 주도하기보다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테이블 토의에서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회의를 이끌었다. 덕분에 필자도 영국 옥스퍼드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독일에서 변증학자로 사역하는 참가자와 함께 World Religions상황에서 창조세계의 돌봄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회기간 내내 매일 만나서 의논을 전개할 수 있었다.

⑤ 인공지능과 선교

인공지능(AI)의 사역적 활용성은 이번 4차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주제 중의 하나였다. 제3차 로잔대회에서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인공지능을 선교와 교회 사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 특히, 매일 점심시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회의 목회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독교기업들이 와서 자신들의 솔루션을 시연하면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북미의 교회와 GBT와 같은 성경번역 선교단체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언어로 성경번역을 시도하는 모습은 새롭게 전개되는 미래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제 아마존의 한 빌리지에서 사역하는 성경번역 선교사가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번역 본부에 보내어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현지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시대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모습이 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디지털 변혁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선교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모습이었다. 열띤 토의와 다양한 참가자들을 통해서 봤을 때 분명 우리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교회도 이것에 대한 선교적 대비가 아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⑥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점 약화와 Gen Z로의 초점 전환

제3차 로잔대회에서 디아스포라 선교가 주요 이슈였던 반면, 제4차 대회에서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는 세계적 상황 변화와 더불어, 인공지능 및 젠더 문제와 같은 다른 현대적 이슈들이 선교적 우선순위로 떠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제3차 로잔대회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제4차 대회에서는 Gen Z가 새로운 주목 대상으로 떠올랐다. 디지털 세대인 Gen Z는 교회와 복음 전파에 있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교회는 이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선교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 세대가 직면한 정신적, 정서적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

28) 이 부분은 이한영 교수님의 발제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⑦ 일터선교신학과 공동체 성경읽기

이번 로잔대회에선 일터선교신학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일터에서의 전문가로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로잔대회의 서울선언에 특기할 점은 공동체성경읽기가 추가된 점이다. 그동안 성경의 권위와 절대성에 관련된 점을 지속적으로 등장했으나 성경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이번에 서울선언에 공동체 성경읽기가 들어온 것은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경청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

V. 나가는 말

한 시대를 새로 열었던 복음주의 로잔운동의 역사와 그 전부를 짤막한 글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역동적으로 날아가는 빛을 상자에 가두고자 하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무모한 일 것이다. 다만 우리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 빛의 성질을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듯이 복음주의 로잔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 로잔대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선교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때 일어났던 모든 선교운동은 처음에 그 다이내믹함으로 인해 성장했다가 점차로 중앙통제와 기구화로의 길을 걷고 종국에는 화석화되는 과정을 역사 속에서 목격하였다. WCC의 지금의 모습도 그런 과정의 예외가 아닐 수 없다. 로잔운동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걷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렇게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잔대회에 앞서서 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는 리폼드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로잔대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그동안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외형적 성장에 심취해 있었다. 교회를 키우느라 자기반성과 철저한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 느슨해졌다. 그러면서 격변기 때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대처를 하지 못했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다. 이 모습이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줬다. 로잔 신학이 주는 메시지는 매우 선명하다. 교회가 건강하게 사회에서 자리 잡는 일이다. 이 대회는 한국 기독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독교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제3세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단, 실질적인 리더십이 바뀌진 못했다. 유명 신학자,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독실업인, 유명 교회들은 여전히 서구권에 있다. 반면,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아시아, 남미 등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아마 영적 리더십과 역할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29]

이번 로잔 대회가 유기성 목사의 바램처럼 한국교회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그의 지적처럼 영적 리더십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부터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로잔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새롭게 부어다 준 포도주를 우리의 가죽부대에 담게 되었다. 이제 서울대회를 마치고 나온 한국교회 참가자들과 모든 한국교회들에게는 새로 담겨진 새 술의 발효작용을 잘 버텨내어 앞으로 주님의 잔치에 내놓을 만한 새로운 맛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가 그 속에서 발효되지 못하고 송곳처럼 포도주 부대를 터뜨리게 될지 사뭇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제 ACTS는 50년 된 가죽부대를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가죽부대에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담아야 할지 헌 가죽부대를 기우면서 살아야 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

29) 유기성, http://www.reformed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0 2024년 10월 1일 접속.

로잔 4 서울 대회 참가 후기

정성국 교수

1. 로잔 4 서울대회 즈음의 컨텍스트

로잔 4 서울대회가 개최된 2024년 즈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 이번 대회가 지니는 의의와 그에 대한 기대를 가늠할 수 있다. (1) 세계선교의 상황 변화, (2) 지구촌 전체의 문명사적 전환과 위기, 그리고 (3) 한국 교회의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으로 로잔 4 서울대회 참가 후기를 시작한다.

(1) 세계선교의 다중 중심화

Laussane 4(이하 L4) 서울대회는 세계선교가 다중 중심화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다. L3 케이프타운 대회 이후, 북미의 선교적 비중은 줄어드는 한편,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 교회의 선교적 약진은 두드러졌다.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번 서울대회 중, 오전과 저녁 주제 강연의 강사들이나 진행자들의 면면을 보면서도 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문명사적 전환기와 위기

L4는 전에 없던 문명사적 전환기 혹은 지구촌 전체의 위기 속에서 개최된 대회다. (1) 우리는 디지털 문명으로의 급속한 전환 가운데 놓여 있다. 이번 서울대회를 준비하면서 로잔 국제본부는 디지털 공간을 가장 중요한 선교지로, 디지털 세대를 일종의 'unreached people'로 인식하면서 Gap 미팅의 상당수를 이 영역에 집중하도록 조정했다.

한편, L4는 여러 '위기'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렸다. (2) 지구촌 전체는 심각한 기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한반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름철 장마 대신 집중 폭우 현상이 수년 동안 이어지더니 올해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많은 이들이 열병에 시달렸다. 기후 위기의 피해는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생태 및 기후 위기 문제는 사회적 정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올해 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본 국가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이다.

(3) L4는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전에 없는 사회적 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열린 대회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도 약육강식과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을 보편화시켜,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지구촌 전체에 전염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생태계의 위기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문명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짝하여, 심각한 사회적 생태계의 위기를 도래하였는데, 이는 다름 아닌 지구촌 곳곳에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공동체의 붕괴 현상이다.

(4) L4는 전에 없던 성 정체성 혼돈의 시대 속에서 열린 대회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가족 개념과 창조 질서의 붕괴라는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다. 서울 선언이 LGBTQ에 관한 꽤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대회 기간 내내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느 그리스인 그룹이 피켓 시위를 벌였고, 마지막 날에는 정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LGBTQ 그룹이 피켓 시위를 벌인 사실은 우리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5) 여기에 더해, L4는 이스라엘-하마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전 세계 29개 지역에서의 전쟁 소식 속에서 개최된 대회였다. '초연결 사회'로 접어든 오늘의 세계 질서 속에서, 위의 전쟁들은 지역 분쟁에 끝나지 않고 세계 도처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의 일상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은 무엇이라 말하고 이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야 할지에 대해서, 지구촌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로잔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3) 한국 교회와 신학교육 기관의 위기

L4는 한국 교회 성도수의 급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개최되었다. L4의 개최지가 될 만큼의 역량과 자원을 지닌 한국 교회가 자체적으로는 심각한 교인 감소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역설처럼 들린다. 한국 교회와 공생관계에 있는 한국의 신학교육 기관들도 위기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필자는 로잔 운동이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교육의 방향에 어떠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의식하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다.

2. 로잔 4 서울대회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L4 서울대회의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였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선교의 대표적인 주제와 영역을 제시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현장에 있는 이들의 보고를 듣는 방식으로 전체 모임이 진행되었다. 로잔의 키워드는 '선교'다. 이슈는 '선교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은 1974년 로잔대회에서부터 마닐라와 케이프타운을 거쳐 2024년 서울대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번 서울대회 기간 동안 강조되었던 메시지들을 돌아보고 개인적인 소감을 제시한다.

(1) 선교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번 대회의 본격적인 일정은 친히 선교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주제는 "약속된 성령님의 오심: 능력 없이는 선교도 없다"였다. 이어서 전 세계에서 목격되는 성령의 일하심과 부흥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기다리자는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한국 교회의 쇠퇴와 위기 탈출의 해법에 골몰하며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 다소 비관적이었던 필자는 세계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의 일하심에 대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무엇보다 선교의 핵심이 하나님 스스로의 일하심에 있다는 사실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다.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는 부흥 보고서를 들으면서, 다소의 신학적인 긴장이 없지는 않았다. 세계의 교회들이 성령님의 '표적과 기사'에 대한 체험을 보고하고, 성령의 '능력' 힘입기를 강조하는 것이, 평소 한국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필자의 신앙 경험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교회들도 한국 교회가 지나갔던 부흥의 경험과 신학적 평가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균형을 찾겠지만, 한국 교회 또한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잃어버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 부흥 보고는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살거나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 체계에 해박하나, 사실상 이신론적 태도로 살아가는 이들을 도전하였다. 어떤 건전한 형태의 신앙이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순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브라질 출신의 복음 전도자 Sarah Breuel이 부흥을 기다리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럽 대륙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크리스텐덤의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부흥의 새벽을 위한 짙은 어둠일 수 있다는 통찰을 나눈 것은 한국적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

(2)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두 번째 주제 강연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이었고,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의 선교 공동체"였다.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 사이의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초기 교회의 이야기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신학과 예전을 지닌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바로 대입되었다. 이번 대회 참여를 통해 필자에게 남은 가장 큰 여운은 세계 222개 국가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5 천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경험이다. 한 마디로 전체 그림을 본 경험이랄까?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니는 다양성과 일치성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로잔은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 우정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로잔의 중요한 정신이자 덕목으로 연사들이 거듭 강조한 것이 로잔 선언에도 포함되어있는 Humility, Simplicity, Integrity였는데, 이러한 덕목이 낳은 결과가 Friendship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느 오순절 교단 백인 남성 연사의 '자신들을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느냐?'는 진지한 부탁이 기억에 남는다. 74년 로잔 대회에 20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참석했던 스위스 출신 어느 목회자의 당시 케냐 감리교 전체 총감독과의 만남 이야기는 겸손, 단순함, 신실함이라는 로잔 정신을 대변한 이야기로 오래 기억에 남는다. 하나님의 선교가 위만 바라고 진행되는 운동이 아니라 옆의 친구들과 어깨를 걸고 같이 걸어가는 우정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세 번째 주제 강연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핍박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8장을 중심으로 세계 교회가 당면한 '고난과 핍박'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날은 우리가 세계 교회,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하루였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전 세계 50개국의 형제자매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필자는 선교와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신학 강의에서보다 더 강렬한 인상과 효과를 경험하

였다.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들과 어떻게 함께 연대할 것인가? 이러한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따라가고 동참할 것인가? 한편, 신학교육 기관으로서 ACTS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는 선교를 '가르칠' 수 있는가?

한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학적 토론이 벌어졌다. 서울선언이 '교회'를 거의 '지역의 제도적 교회'로만 한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1세기 초기 교회들이 모두 오늘날의 제도적 교회와 같은 조직과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선언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독점'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이번 대회를 후원한 큰 교회들의 입김이 반영되었다는 자본의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코로나 이후 붕괴된 지역 교회들의 회복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것이지, 교회의 선교가 곧 하나님의 선교일 수는 없다.

(3) 총체적 선교를 위한 일상, 일터, 광장의 신학

1974년 로잔 대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 관계성을 두고 신학자들과 현장 사역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관계다. Billy Graham이 복음 전도와 해외선교를 중심으로 로잔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로잔 선언문 발표를 계획하자, 자신은 이 운동에서 빠지겠다고 반박한 John Stott의 일화는 유명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는, 마지막 날까지 양자 사이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당시 Fuller 신학교 교수이면서 Billy Graham과 같은 입장을 표방했던 Peter Wagner를 John Stott와 함께 같은 방에 넣고 어떤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게 가두어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1974년 로잔 선언문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두를 담아낸 문서가 되었고, 그 이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방향 제시를 기대했던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로잔 선언문은 남북 분단과 군사정권, 개발주의 시대와 교회의 폭발적 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했던 한국의 재야 복음주자들에게 신학적 이정표 역할을 해 왔다. 로잔에 대한 이들의 애착은 교단의 신학적 전통에 의존하는 한국의 주류 교단과 교단 신학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신학자, 목회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한편, 로잔에 대한 접근의 차이는 로잔 운동과 로잔 선언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낳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L4 서울대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서울 선언이 공개된 이후에, 로잔을 가운데 둔 신학적 좌우 진영의 줄다리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번 서울 선언이 오히려 L3 케이프타운 선언문보다 퇴보하였고, 심지어 1974년 로잔 선언문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로잔의 선언들이 이전 선언문을 전제하면서, 새로운 선교적 어젠다들을 담아내는 형식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러한 평가는 지나치다. 다만, 케이프타운 선언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책임의 관계를 '우선성'의 개념이 아니라 '중심성'과 '궁극성'의 개념을 빌어 정리한 점은 로잔 운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즉, 복음 전도, 사회적 책임, 창조세계 돌봄 사이에 어떤 시간적 우선성이 있는 것

이 아니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모든 영역을 복음으로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L1 로잔 선언문 안에 남아 있는 John Stott의 흔적은 바로 이러한 '총체적 선교' 개념으로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다.

이번 서울대회 네번째 주제 강연 제목은 "일터에서의 기독교인의 증거"였고, 강연자는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예루살렘, 빌립보, 고린도, 로마라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상인들과 기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위 일상 신학 혹은 일터 신학을 펼쳤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죽 기술자인 동시에, 자신의 일터라는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들로 소개되었다.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초기 교회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영웅적 해석학'의 비판을 받는다.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무역 루트를 따라 복음을 전했을 당시의 '이름 없는 선교사들' 또한 초기 교회 선교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곳'에서 선포되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예배당과 사제 대신, 일상과 일터 그리고 상인과 기술 노동자들이 기독교의 중심으로 인정받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번째 주제 강연의 제목은 "화해: 깨어진 영역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었다. 강연자로는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인 콩고와 부룬디의 교회 지도자, 온라인 성매매 노예에서 탈출한 동남아시아의 소녀, 나사렛 평화 연구 센터의 설립자인 어느 팔레스타인 출신의 여성 신학자/변호사, 그리고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의 총장이 등단했다. 이들은 깨어진 삶의 자리들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각자가 어떻게 치유와 화해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나의 일상, 나의 일터를 넘어 진행된다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소위 '광장의 신학'으로의 초대다. 국제적 분쟁이나 내전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등의 이슈들은 모두 하나님의 치유와 평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랑과 함께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은 광장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하는 선교 현장 가운데 가장 난해하면서도, 전략적 공간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편,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도,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도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현장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은 국가나 민족의 경계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경계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증거였고, 분쟁과 갈등에서 치유와 화해로 가는 과정의 출발점으로 다가왔다.

3. 로잔 4 이후, 한국 교회와 ACTS 신학

이번 대회 목요일 저녁에는 '한국교회의 12돌'이라는 공연을 통해,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념하였듯이,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12개의 지점을 역사적 상징물에 담아 소개하였다. 특히, 11번째 돌무대에서는 한국교회의 낮은 신뢰도와 교인의 감소, 한국의 낮은 출생률과 높은 자살률, 젊은이들의 교회 엑소더스 현상과 같은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함께 회개와 갱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회개와 갱신에 대한 의지가 공연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에서

는 로잔 4 서울대회 이후의 한국교회와 ACTS 신학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짧게 피력하고자 한다.

(1) 크리스텐덤 속에서 형성된 감각들로부터의 탈피

지나친 과장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소위 '(한국판) 크리스텐덤'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크리스텐덤 속에서 형성된 감각들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필자는 떨치지 못한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특수한 형태의 기독교를 배웠는지를 망각한다. 우리는 서구의 크리스텐덤 속에서 형성된 신학과 교회의 모습에 기대어 기독교를 배웠고, 그것에 기대어 지난 140 여년 동안 한국적 토양에서 지금의 신학과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왔다. 성경에 기록된 초기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거나, 로잔 대회 참여와 같은 경험을 통해 세계 교회 전체의 모습을 조망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학교라는 선교지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필자는 현재 하나님께서 세계와 한국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선교와 동떨어진 채, 진행된 여러 신학적 작업들을 성찰하게 된다. 크리스텐덤의 감각들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비단 신학자의 신학함뿐이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웅장한 예배당에서 일상, 일터, 광장으로, 영웅적인 기독교 지도자와 설교자들에서 상인과 기술 노동자와 가정주부로의 중심 이동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한국판 크리스텐덤 안에서 형성된 감각들로부터 탈피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감각과 그분의 선교 현장에 동참하는 겸손하고도 단순한 실천들이야말로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재형성할 것이다.

(2) 선교 전략으로서의 연대와 협업

로잔 대회 기간 중 오전과 저녁은 전체 세션으로, 오후는 25개의 선교적 Gap을 다루는 소그룹 테이블 미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로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5개의 선교적 Gap 주제들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선교적 과제들에 대한 국제 로잔 본부의 판단을 반영한다. 많은 이들이 증언하는 것은 로잔의 운동력은 로잔 대회가 아니라, 그 이후의 다양한 Gap 미팅에서 일어나는 선교적 Network와 Collaboration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대와 협업은 선교적 Gap이 어디인지를 선명히 제시할뿐 아니라 불필요한 선교적 활동의 중복을 방지한다. 나아가 동료 현장 실천가들과 이론가들의 만남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선교적 통찰과 실천의 공유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이번 서울대회 기간 동안, 진행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Collaboration이었다.

한국적 상황에 매몰되다시피 해온 필자에게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함께, 연대와 협업이 없이는,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나와 우리 기관만의 선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서울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여러 단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 교회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연대하며 때로 도전하기도 한 한국의 '재야' 복음주의 단체들과 선교 단체들이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한국적 상황 안에서만 보더라도, 생존 논리에 매몰되어 자기 기관의 활로에만 몰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나님

의 선교를 위해 세움받은 우리 대학이 살기 위해서라도, 연대와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의 다양한 기독교 기관들과의 협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하나님 선교를 위한 지도자 양성과 신학교육

우리 대학은 복음으로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선교 기관이다. 우리 대학의 교수들과 직원들이 함께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선교적'인가? 우리 대학은 강의 내용뿐 아니라, 대학의 구조와 실천이 '선교적'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번 대회 강연자 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뒤 출소되자마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 지역을 향해 떠났던 이란의 사역자들이 떠오른다. 세계 교회 전체가 처한 이러한 상황은 우리 대학의 모든 활동과 경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선교적'인가?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 아래 이번 대회 기간 중에 다루었던 주요 주제들은 신학교육 기관인 우리로서는 지나칠 수 없는 주제들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섬기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Humility, Simplicity, Integrity를 특징으로 하는 섬기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육과정을 지니고 있는가? 이글의 서두에서도 밝혔다시피, 작금에 우리가 처해 있는 복잡한 상황은 매우 전략적인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요청하고 있다. 지구촌 전체가 당면한 문명사적 전환기와 위기뿐만 아니라, 한국적 상황 안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방 소멸, 가정 파괴, 자살율 세계 1위, 교육 붕괴 현실 가운데 있는 한국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드러낼 선교사들을 길러내야 한다. 전통적 신학 분과 간의 벽을 넘어 통합적 신학, 통섭적 신학을 전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는 교단 신학의 경계를 벗어나기 힘든 한국의 다른 신학교들과 비교해 볼 때, ACTS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최적의 기관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와 교회를 조망할 때 이러한 새로운 자부심이 우리를 규정하면 좋겠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 자부심을 ACTS 구성원들과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가름한다.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참석 보고서

섹슈얼리티와 젠더(Sexuality and Gender) 의제를 중심으로

이한영교수, 아신대 구약학

들어가는 말

이번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2024.09.22~28)는 개인적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큰 감동과 영적 각성의 사건이었다. 먼저 현재 UN 193개국보다 많은 세계 222개 국가와 영토로부터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대표하는 5천여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습은 보기 힘든 장관이었다. 그리고 총7일동안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충만한 찬양과 말씀의 도가니를 경험하는 가운데 나는 "작은 로잔"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우리 ACTS 공동체 모두가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음을 대회 내내 아쉬워했다.

서울-인천 로잔대회는 지난 2000년 Cape Town대회 이후 14년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세계복음화운동 선상에서 실현되었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현 시대의 세속적인 도전 앞에 침체와 분열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여 보다 더 총괄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지(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를 논하고 구상하는 장이었다.

로잔대회 참여자들은 기관이 아닌 세계각지 각분야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 개개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자비를 드려 한국에서의 로잔대회를 찾은 근본적인 모티프는 그 어떠한 일괄된 교리적인 답을 찾는데 환원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대회 내내 합심 기도와 회개, 사도행전 강해와 찬양으로 충만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현사회와 교회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서로를 경청하고, 성찰과 열린 논의로 실천가능한 총체적 선교전략들을 구상해 지속가능한 협동을 추구했다. 이에 사회.정치.경제.문화 전반을 어우르는 25개의 분과(GAP 1-25)와 80여개의 섹션, 즉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련 전문의들과 관심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을 통해 실천적인 협업행동(Collaborative Action)을 도모했다. 본 저자는 그 중 GAP-12인 '섹슈얼리티와 젠더"(Sexuality and Gender) 분과에 등록해 적극 참여했고 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을 대회 기간동안 부분적으로나마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소고는 이를 간략히 정리하고 평가한 개인적 보고서(report)라고 명하고 싶다.

I. 참여자들에 대하여

먼저, 본 이슈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누가 GAP-12 분과를 주도했으며 함께 참여한 자들의 프로파일은 어떤 것인지를 짧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로잔대회를 외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적극 반대한 내러티브들은 크게 두개의 공통 프레임으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1973년 로잔, 그리고 이후 마닐라와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대회의 주요 대표들이 모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와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의 의제를 모호하게 넘겼고, 마찬가지로 이번 2024서울-인천 로잔대회도 다종교연합과 성적모호성을 수용하거나 조장한다는 프레임이다.

실제로 이번 대회 세번째 홀-미팅 오전 시간에 유튜브에서는 당시 섹슈얼리티와 젠더 주제를 발표하고 있던 *보은 로벗츠*(Vaughn Roberts)목사가 동성애자로 그리고 성적 모호성을 옹호하는 자로 그에 대한 비난과 비평의 동영상이 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발표 중 영국 옥스포드에서 LGBTQ 대상의 특수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로벗츠* 목사는 자신이 청소년기부터 동성애를 느끼기 시작했으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이는 죄로 인해 "창조에서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설계"(God's original design of sexuality in creation)를 이탈한 것으로서 "성은 거룩한 것이며, 이는 세상의 그 어떠한 세계관이나 문화의 흐름에도 변할 수 없는 말씀 계시로서, 성교는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30] 이어 이성애자들의 음란, 간통, 포르노 등을 지적하며,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으로 단순 분리해 정죄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타락한 성적지향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성적모호성을 가진 자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적극 섬기는 것이 문제 본질에 대한 올바른 접근임을 강조했다.

로벗츠 목사와 함께 주목되는 또 한 분의 참가자는 GAP-12, Sexuality and Gender 분과를 3일동안 리드한 *올로프 에드징거*(Olof Edsinger)다. 그는 스웨덴 복음주의 연합의 사무총장이며 정체성, 섹슈얼리티, LGBTQ를 주제로 한 책을 포함해 약20권의 책을 집필한 전문가다. 그는 인격적인 신앙과 복음적 신학, 깊은 학문적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목회학적인 자세로 소그룹 모임을 인도했다. *올로프*는 모임 내내 약10여명으로 구성된 5개의 논의그룹에 본인의 최종적 전략이나 제안보다는 서로를 경청하며 복음적인 해답을 소그룹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대화의 장을 조성해 나갔다. 그는 그의 여는 말문에서 교회의 성과 젠더의 이슈는 오늘날 제3의 성적 혁명(3rd Sexual Revolution)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각으로 조명해 볼 때 이미 초대교회와 로마제국의 대립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과 젠더는

30) Vaughn Roberts의 본 발표동영상은 다음을 참고하라. 'Restoring Biblical Sexuality', https://lausanne.org/video/restoring-biblical-sexuality-vaughan-roberts, (09 Oct, 2024).

초대교회와 로마제국의 신학과 세계관 논쟁에서 이미 처음부터 핵심적인 주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 젠더는 동성애와 이성애의 대립을 넘어 기독교 세계관과 인간론의 큰 틀 안에서 다각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나의 GAP-12소그룹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내가 속한 그룹은 10명으로, 브라질, 미국, 태국, 캄보디아, 인도, 한국, 영국 등 다국적 참여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를 빼고는 모두 LGBTQ 당사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들이었다. 가족, 지인, 사역대상자들 중 성적 모호성의 소유자들이 있거나, 태국에서 온 미국인 흑인여성 참가자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 사창가로 인신매매된 미성년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였다. 당연히 동성애자를 접근하는데 있어 온도차이와 의견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것은 필드사역자들은 '접근'에 관심을 가졌고 신학사역자들은 '교리'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논의가 오갔으나 결론적으로 성적 모호성을 성경적으로 옳다 하는 주장은 없었고, 그보다는 이를 교회가 어떻게 품고 섬겨야 하는 가에 있어서는 보다 포용적인 진보와 배타적인 보수의 접근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GAP-12 그룹만 아니라 칠일동안 함께 한 저자의 홀-미팅 그룹에는 미국 Westmont College 학장, 키프로스 예수전도단 선교사, 남미 페루 노인선교회 대표, 홍콩과 나이지리아에서 온 신학자들이 함께했다. 이러한 참여자의 다양성은 로잔의 GAP과 홀-미팅 모임의 성격이 선제적인 갈등과 대립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접근방식을 상호 경청하고 배워 복음사역에 있어 보다 더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솔루션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임을 새삼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 본 소고의 다음 섹션에서는 GAP-12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이미 잘 정리해 이번 모임의 리더였던 *올로프 에드징거*(Olof Edsinger)와 *The Gender Revolution* (2003)의 저자이며 의사인 *파트리시아 위라쿤*(Patricia Weerakoon), 그리고 Wheaton College 심리학 교수인 *마크 야르하우스*(Mark Yarhouse)가 공동으로 작성해 로잔 홈페이지에 올린 "Sexuality and Gender"의 요약문을 소개하고자 한다.[31)]

II. 섹슈얼리티와 젠더(Sexuality and Gender)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경험은 모든 인간 문화의 중심이지만 이에 대한 보편적 현실에 대한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 주제의 보편성과 분열성 둘 다 오늘날 세계교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경은 모든 문화와

31) 서울선언문과 함께 모든 GAP 모임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이번 서울-인천 로잔대회에서 발표된 자료들은 Lausanne Movement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섹션은 나의 글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출판된 원고의 요약문임을 밝힌다. Olof Edsinger, Patricia Weerakoon, Mark Yarhouse. Sexuality and Gender', *Lausanne Movement*, https://lausanne.org/report/human/sexuality-and-gender, (07 Oct, 2024).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함축함으로 섹슈얼리티와 젠더 이슈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슈들을 평가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서구의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현재의 사고를 이해하려면, 과거 전통적인 규범을 무너뜨린 성과 젠더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초래한 1960~1970년대 성 혁명을 조사해야 한다.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한 두 가지 중요한 원동력은 피임과 낙태를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든 의학적 발전과 이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만든 사회적 태도의 변화였다. 이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이해에서 성을 분리시켰다.

성혁명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만일 개인에게 성적 표현에 있어서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개인과 가족과 사회의 복지가 극대화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성경적] 권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기독교] 기관들의 성추문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오늘날의 이상(ideal)을 가족의 존엄성, 사회적 규범, 자연 생물학, 신적 권위 등 '모든 외부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로 환원시켰다.

실제로 성(sex)은 [인류학적으로] 우상들의 신전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개인의 권위와 만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성의 가치를 유일한 자기실현으로 간주하며 성의 [보다 더 깊은] 가치를 평가 절하시켰다. [만약 성이] 초월적인 목적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자기 사랑뿐이다(딤후 3:2). 이러한 근대적 성혁명의 영향은 광범위하고 깊으며 파괴적이다.

[오늘날의 성적지향성은 결혼에도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결혼율과 출산율의 급락, 난잡한 성행위, 동성 간 성행위는 서구의 많은 도시 및/또는 청소년 문화에서 주류가 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자신을 양성애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들이 관계적으로 '모든 문을 열어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들 대부분은 이성애 관계로 돌아간다. 따라서 젠더와 관련해 인간의 신체를 다루는 생물학(embodied biology)은 더 이상 자신에 관한 어떤 절대적인 지식의 원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의 감정과 욕구에 맞는 장신구가 될 뿐이다. 이에 트랜스섹슈얼리티(transsexuality)라는 드문 의학적 상태는 이제 트렌스젠더 현상으로 탈바꿈되었다.[32] 이러한 모든 현대 사회의 성적인 흐름과 경향은 인간의 번영을 촉진하는 신실하고 성경적인 섹슈얼리티에 어긋난다. 이에

32) 본문에서 트랜스섹슈얼리티(transsexuality)란 유전자 재조합의 이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기 장애를 지시한다. 예로 남성(XY)에게 여성의 성기가 그리고 여성(XX)에게 남성의 성기가 부분적으로 형성된 신체를 의미한다.

앞으로 우리는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관한 오늘날의 추세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첫 번째: 극단적 개인주의-기술 관료적 자유주의

첫 번째는 가족, 우정, 공동체의 유대보다 자기만족이 더 중요한 급진적인 개인주의가 상세할 것이다. 그런 사회는 건강한 성생활의 패턴이 개인의 취향 밖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거부한다. 앞으로 섹스 로봇과 가상섹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결국에는 자원이 풍부한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타인'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이성애자(heterosexual), 동성애자(homosexual), 범성애자(pansexual) 혹은 다성애자(polysexual)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점점 더 쾌락의 추구를 증가시키는 특징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끝내 필연적으로 불안, 우울증, 자살 충동 및 안락사에 대한 관심, 출산율 감소 등 개인과 가족과 사회 전반에 재앙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파종과 추수의 법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레 18장; 롬 1장 참조).

또 다른 현상은 젠더 이데올로기와 트랜스젠더 운동의 정상화일 것이다. 이미 사용되는 의료 기술은 점점 더 쉽게 접근하게 되어, 한 세대 전에는 믿기 어려웠던 방식의 성형수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드문 경우지만, 이러한 절차는 심각한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는 점점 더 젊은 사람들에게 쉽게 제공될 것이며 '의학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이유로 쉽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공동체적-자연주의적 율법주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상반된다. 오늘날 이란(Iran)이 동성애(same-sex sexuality)보다 성전환을 선호한다는 점과 규칙 위반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시행하는 점에서, 우리는 보다 더 엄격한 [집단적이며] 율법적인 접근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서구의 문화적 규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어떤 사회에서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첫 번째 정황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런 경향은 아마도 도덕적인 [절대적] 종교성을 낳을 것이다. 그 결과, 성경적 규범은 기쁘고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비판 없이 공유되는 '종교'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이념은 도덕성(우리의 목적을 위한 공동의 성 윤리)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정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낳으며, 그런 도덕성과 무관한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종교성은 첫 번째 정황의 특징인 자기만족을 위해 종교와 공동체를 포기하라는 세속주의자의 요청을 강화할 것이다.

세 번째: 신보수주의와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전통적인 이해에 대한 새로운 관심

세 번째는 성혁명에 대한 재평가로 설명될 수 있다. 성혁명은 [이를 주도한 사람들의] 약속[본래의 기대]을 실행하지 못했다. [대신] 젊은 세대는 자유와 성취 대신 강렬한 깨어짐과 공허함을 물려받았다. 일부 젊은이들이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이념, 특히 과학적 지식 및 객관적 실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는 영역에서 반발을 목격할 수 있다(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위한 성전환 치료[gender reassignment therapies]의 장려와 태아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주류의 문화적 가치를 거부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동의 싸움(co-belligerence)이라는 요소는 현대 트랜스젠더 운동의 일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제한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존재한다.

이 집단의 하위 집단은 자신의 동성애 경험이나 불일치하는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탐색하고 하나님의 섭리로써 성행위에 대한 성경적 표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교회가 나아갈 길

교회는 적어도 두 가지로 이렇게 변화하는 태도에 대응해야 한다.

첫째, 그 대응은 최소한 사회가 자멸로 쇠퇴하는 것을 늦춰야 한다. 아마도 그것을 저지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유익을 구하도록 인도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비롯된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기독교적 틀과 관련된 개념들을 성립해야 한다. 즉 우리의 감정이나 선호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있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기독교 복음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개념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개념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죄의 개념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성적인 온전함(sexual

wholeness)에 대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 태도에 대한 확신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고 기독교인들이 섹슈얼리티를 포함해 복음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아 준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세속적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신자들을 자신 있게 성경에 서 말하는 견해로 이끌기 위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성경적 견해에 충분한 확신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두 번째 길의 특징인 비이성애자들을 소외시키고 거부하는 데 기여했던 과거의 잘못을 인식하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오로지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분의 이름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기꺼이 확인하고 도전하며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 받았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길(극단적 개인주의-기술 관료적 자유주의)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교회는 다음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1) 신실한 교회는 세상의 수용을 선호하여 성경적 성도덕을 거부하고 배교하는 진보적(progressive) 기독교와 구별하라. (2) 두 번째 길이 주장하는 종교적 도덕주의와 성경적 성윤리를 구별하라.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에 의한 것이며, 우리의 섹슈얼리티의 성화는 성령의 선물이다. (3) 성적 방임이라는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적 순결을 추구하라.

두 번째 길(공동체적-자연주의적 율법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를 피하려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전함을 강조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체화 된 섹슈얼리티(embodied sexuality)의 법칙에 어긋난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회복시키신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전함이 어떻게 단순한 도덕주의를 배제하는지를 보여주라. 우리는 이성애나 성적 순결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얻지 않고, '순결만으로 구원'을 받거나 이성애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많은 용서를 받은 성적인 죄인들을 환영하셨듯이, 진정한 구도자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적인 죄인을 환영하라. 여기에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성전환자를 포함하여 성 정체성과 신앙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정직하게 생명을 구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또한, 성전환을 후회하고 성전환 환원(detransition)을 추구할 수도 있고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다.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대위임령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의 소망은 섹슈얼리티와 젠더를 신실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가장 설득력 있게 구현되고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트라우마, 학대, 중독, 무질서한 성생활 및 타락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미치는 다른 영향에서 구속하신 사람들, 그리고 그의 능력과 은혜로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교회 환경에서 건강한 섹슈얼리티를 함양한 사람들을 포함할 것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추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른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이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경향인데, 이는 잠재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9:1-3)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질병을 그 사람이나 부모의 탓으로 돌리려는 유혹이다. 우리의 타락한 상태와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신적 회복의 복잡성을 분열의 문제로 만들기보다, 서로 인내하며 부지런히 성경적 분별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축하자.

또한, 우리는 지도자들이 성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책임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유명 기독교 문화의 유혹에 대해, 그리고 선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도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교회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사회에서 기독교적 헌신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우리의 윤리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 존경과 긍휼의 태도를 보여주는 '신념에 찬 시민정신'(convicted civility)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긴장을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1) 아름다운 신비이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인 남자와 여자의 일부일처제 결혼 내의 성(엡 5장; 계 19, 21장). (2) 신체적인 가정생활의 일상적 리듬에서 독신자들을 위한 실제적, 영적 지원과 함께 독신에 대한 높은 견해. (3)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창 3장)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수용. (4) 투명성과 겸손을 위한 정서적, 영적으로 안전한 장소인 교회, 신자들이 서로 나누고 지지하며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교회. (5) 불건전한 욕망, 부자연스러운 성향, 불 경건한 행동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 우리는 그들의 욕망과 성향에도 불구하고 섹슈얼리티와 젠더 관련 이슈를 충실히 탐구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은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6) 탄력적이고 고결한 성품을 배양하는 데 있어 자제력의 가치. (7)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실재, 부활한 불멸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는 기쁨.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선이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관한 대화로 들어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종말론적

소망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 혹은 모든 수준의 완성에 대한 인간의 갈망(eros)은 그것이 오직 영원 속에서만 충족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신호이다. 독신 생활과 결혼 생활의 순결을 통해 구현되는 기독교인의 소망은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영원한 비전으로 인도한다.

III. 서울 선언문

마지막으로 서울선언문(Seoul Statement 2024) IV.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아래 56-70항에 명시된 성과 젠더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평가해보고자 한다. 로잔대회가 성과 젠더에 관한 이슈를 선언문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한국기독교의 보수진영이 이번 대회의 주최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항 56-70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은 하나님의 창조이다(56항). 이에 대한 왜곡을 통탄한다. 생물학적 성(sex)과 성별(젠더)는 분리할 수 없다(57항). 그런데 서울선언문은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게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이며 그 범위를 벗어난 성관계는 창조주의 설계와 의도를 위반하는 죄악이라고 선언한다(59-60 항).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68 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의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69 항).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 교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동성에게 끌림을 경험하는 교인들이 존재함을 인지하며,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제자 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70 항).

아이러니 한 것은 서울선언문에 명시된 성과 젠더 조항에 대해 한국교회의 진보와 일부 보수 진영이 모두 거센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는 결혼과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 성 관계를 죄악으로 명시한 부분(59-60 항), 그리고 보수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69항)라는 문구를 문제 삼고 있다. 이는 모두 성경과 서울선언문의 문맥을 벗어난 비평이라고 지적해볼 수 있다. 성과 젠더에 관한 서울선언문 2024는 최초라는 역사성을 넘어 율법과 은혜를 성경 중심적이고 전인적인 각도로 구성하고 있다. 즉 성적 모호성과 이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성경의 진단과 사랑의 원리를 균형 있게 명시하고 있다.

나가는 말

이번 서울-인천 로잔대회에 참여하며 새삼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로잔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1966년 베를린 세계복음화대회로부터 시작된 아신대학교는 그동안 60여개국으로부터 온 다민족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서로의 다양성을 복음 안에서 조합하며 한국과 세계 복음주의교회들의 연합을 도모해왔다. 이는 로잔의 정신을 실제로 구현하고 실천한 사래다. 여기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연합이라는 개념과 실제는 불변성과 배타성을 가진 복음을 타락시킬 수도 있다. 이에 ACTS의 신학과 신앙운동은 성과 젠더의 이슈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변함없이 그러나 가장 전인적이며 포용적으로 구현하고 실현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할 것이다.

ACTS 신학연구소 소개

연혁

1984년	ACTS 신학 연구소의 시원인 『ACTS Theological Journal』 1호 발간
1988년	ACTS 신학 연구 방향 제안 논문 한철하 박사의 “The Theological Task of ACTS” 상기 저널 3호에 출판
1993년	3월 교수 주례 세미나에서 한철하 박사에 의해 “ACTS 신학 건설의 과제와 방법론” 제안
1994년	8월 교수 주례 세미나에서 한철하 박사에 의해 “ACTS 신학 공관 운동 제안”
1997년	제72회와 제74회 ACTS 이사회는 ‘신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 산하에 ‘신학연구원’을 설치하기로 결의 신학연구원의 업무는 ‘본 대학교의 신학적 입장 명시 및 신학 수립을 위한 연구와 지도’라고 규정
1998년	3월 신학연구원 설립. 조직은 원장(한철하)과 부원장(박일철) 외에 4인의 전임연구교수로 구성 (강창희, 최종태, 장해경, 정흥호) ‘주례신학연구회’(Weekly Study: WS)와 ‘교수세미나’(Faculty Seminar: FS) 시작 ‘ACTS 신학공관’ 운동 시작 9월 ‘ACTS 신학공관’ 운동에 ‘신앙운동’을 병행하기 시작
2006년	3월 강창희 교수 원장 선임 5월 학내사태로 인하여 신학연구원 활동 중지
2011년	3월 ACTS가 정상화되어 신학연구원 활동 재개 (원장 강창희, 부원장 장해경, 서기 한상화, 전임연구교수 우심화, 원종천, 정흥호). ‘격주례신학연구회’(Bi-Weekly Study: BWS)와 ‘교수세미나’(FS) 다시 개최 12월 이사회 신학위원회 산하기구였던 신학연구원을 대학의 부설 연구소(‘신학연구소’)로 변경·설치
2012년	9월 전임연구교수진 중 우심화 교수 사임과 박응규 교수 선임
2013년	9월 장해경 교수 소장 선임과 한상화 교수 부소장 선임과 안경승 교수 전임연구교수 선임 대학의 부설 연구소가 된 신학연구소의 운영규칙을 대학의 규정에 통합시켜 수정·보완하고, 별도의 내규 제정
2014년	3월 신학연구위원(구. 전임연구교수) 중 원종천 교수 사임과 조휘 교수 선임 및 서기 겸임
2015년	4월 ‘ACTS 신학공관’ 선언문 통과 6월 제1차 ‘ACTS 신학포럼’ 개최 (발표: 장해경 · Saleem Younas · 조권수 · 박종원) 10월 제2차 ‘ACTS 신학포럼’ 개최 (주제: '기독교 중심진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의 성화/ 발표: 안경승·Vemagiri Jeevan Prakash Kumar·문영득 · 박균상)
2016년	3월 신학 연구위원 개편 (소장: 한상화, 서기: 김준수, 전임연구교수: 정흥호, 장해경, 원종천, 이한영)

	4월 제3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기독교 중심진리'와 교육/ 발표: 한상화·이숙경) 10월 제4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신학공관과 선교신학의 중심진리/ 발표: 정흥호·김영미)
2017년	4월 제5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신학공관과 역사신학/ 발표: 박응규·조권수) 11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ACTS 국제 학술대회’ 개최 (주제: 복음과 개혁/ 발표: Frank A. James III·Nelson Jennings) 12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한상화, 전임연구위원: 원종천, 정흥호, 이한영, 안경승, 허주)
2018년	4월 제6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신학공관과 기독교사회복지/ 발표: 손신·정준희) 8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박응규, 전임연구위원: 원종천, 정흥호, 이한영, 안경승, 허주) 10월 제7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신학과 기독교 문화, 예술/ 발표: 금동철·김다니엘)
2019년	3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허주. 전임연구위원: 박응규, 이한영, 정홍열, 안경승, 안점식) 4월 제8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신학과 신약신학의 과제/ 발표: 김규섭·허주) 10월 제9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신학교육과 한국교회의 미래/ 발표: 이숙경·한상화)
2020년	3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박응규. 전임연구위원: 이한영, 허주, 한상화, 안점식, 김준수) 10월 제10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신학과 구약신학의 과제/ 발표: 조휘·이한영)
2021년	4월 제11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신학과 북한선교/ 발표: 정지웅·조기연)
2022년	3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안경승. 전임연구위원: 안점식, 이한영, 정성국, 허주) 4월 제12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신학과 조직신학의 과제/ 발표: 한상화) 10월 제13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목회의 방향/ 발표: 정현구, 신성욱)
2023년	3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허주. 전임연구위원: 안경승, 이한영, 조휘, 김한성) 4월 제14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신학과 생태환경/ 발표: 이한영, 이창준) 10월 제15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과 로잔운동 / 발표: 최성은)
2024년 현재	3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허주. 전임연구위원: 안경승, 전희준, 조휘, 김한성) 4월 개교 50주년 기념 제16차 ‘ACTS 신학포럼’ 개최 (주제: ACTS의 초기 인물과 신학적 유산/ 발표: 임희국, 김승곤, 손봉호) 10월 제 17차 'ACTS 신학포럼'개최(주제 : ACTS 신학과 로잔운동/ 발표 :이명석, 정성국, 이한영)

ACTS 신학포럼 (1차 ~ 현재)

제 1 차 ACTS 신학포럼 (2015. 6. 8)	논문	**장해경**.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논문	**Saleem Younas**. "The hatta't as Both Expiatory and Purificatory Offering"
	논문	**조권수**. "어거스틴과 루터의 인간론과 그 결과론적인 칭의론 비교연구"
	논문	**박종원**. "한국 문화를 통해 본 한국 교회 목회 리더십의 문제점과 신학적 고찰을 통한 대안 제시"
제 2 차 ACTS 신학포럼 (2015. 10. 26)	주제 : '기독교 중심진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의 성화	
	논문	**안경승**. "기독교 상담에서의 칭의와 성화"
	논문	**Vemagiri Jeevan Prakash Kumar**.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n Perspective – Theological Changes and Challenges"
	논문	**문영득**. "기독교의 중심진리로서 성화: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을 중심으로"
	논문	**박균상**. "조나단 에드워즈 '성화론'과 ACTS 신학의 기독교 중심 진리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 성화의 필연성과 적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 3 차 ACTS 신학포럼 (2016. 4. 18)	주제 : '기독교 중심진리'와 교육	
	논문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신학공관'과 '기독교 중심진리'"
	논문	**이숙경**. ""구원하는 믿음"의 성격에 비추어 본 기독교교육의 근본 원리 및 과제"
제 4 차 ACTS 신학포럼 (2016. 10. 24)	주제 : ACTS신학공관과 선교신학의 중심진리	
	논문	**정홍호**. "ACTS 선교신학의 본질"
	논문	**김영미**. "해석학적 공동체로서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연구"
제 5 차 ACTS 신학포럼 (2017. 4. 24)	주제 : ACTS신학공관과 역사신학	
	논문	**박응규**. "ACTS 신학공관과 교회사 연구·해석에의 적용"
	논문	**조권수**. "ACTS 신학공관과 루터의 인간론과의 연관성 고찰"
	논평	**원종천**. "조권수 박사의 논문, "ACTS 신학공관과 루터의 인간론과의 연관성 고찰"에 대한 논평"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ACTS 국제학술대회 (2017. 11. 13)	주제 : 복음과 개혁	
	논문	**Frank A. James III**. "Reformation and Rediscovery of the Gospel"
	논평	**원종천**. "A Response to 'Reformation and Rediscovery of the Gospel'"
	논문	**Frank A. James III**. "ACTS Theological Synopsis: A Histor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Response"
	논평	**장해경**. "A Response to 'ACTS Theological Synopsis: A Histor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Response'"
	논문	**Nelson Jennings**. "ACTS Theological and Pastoral Consult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Quincentennial of the Reformation"
	논평	**신성욱**. "Comments on Dr. Jennings' lecture"
제 6 차 ACTS 신학포럼 (2018. 4. 23)	주제 : ACTS신학공관과 기독교사회복지	
	논문	**손신**. ""21세기 인류의 살길"에 대한 사회복지적 적용"
	논문	**정준희**. "EMPOWER 기독교 복지사상 연구"
제 7 차 ACTS 신학포럼 (2018. 10. 15)	주제 : ACTS신학과 기독교 문화, 예술	
	논문	**금동철**.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방식과 기독교의 중심 진리"
	논평	**이숙경**.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방식과 기독교의 중심 진리'에 대한 논평"
	논문	**김다니엘**. "Theo-Drama 공연제작으로 인한 신학교육과 타문화선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Resurrectio" 공연 사례 연구"
	논평	**정홍열**. "'Theo-Drama 공연제작으로 인한 신학교육과 타문화선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Resurrectio" 공연 사례 연구'에 대한 논평"

제 8 차 ACTS 신학포럼 (2019. 4. 22)	주제 : ACTS신학과 신약신학의 과제	
	논문	**김규섭**.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 – 신앙운동의 의의”
	논평	**한상화**. “김규섭 교수님의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의의”에 대한 논찬”
	논문	**허주**.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
	논평	**이한영**.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에 대한 논평”
제 9 차 ACTS 신학포럼 (2019. 10. 14)	주제 : 신학교육과 한국교회의 미래	
	논문	**이숙경**. “ACTS 신학 교육에 대한 제고”
	논문	**한상화**. “한국 신학교육 개혁의 사명과 방향성에 관하여–학제개혁 제안과 커리큘럼 변혁의 사례–”
제 10 차 ACTS 신학포럼 (2020. 10. 19) *On-line forum	주제 : ACTS신학과 구약신학의 과제	
	논문	**조휘**. “선지서의 ‘여호와의 날’ 개념으로 본 ACTS 신학공관운동의 타당성과 제언”
	논평	**정성국**. “논찬: 조휘, ‘선지서의 여호와의 날 개념으로 본 ACTS 신학공관운동의 타당성과 제언’”
	논문	**이한영**. “웨슬리의 구약설교와 신학”
	논평	**허주**. “논평: 웨슬리의 구약설교와 신학”
제 11 차 ACTS 신학포럼 (2021. 4. 9) *On-line forum	주제 : ACTS신학과 북한선교	
	논문	**정지웅**. “ACTS 신학과 북한선교”
	논문	**조기연**.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학의 가능성”
제 12 차 ACTS 신학포럼 (2022. 4. 18) *현장 및 온라인 동시 개최	주제 : ACTS신학과 조직신학의 과제	
	논문	**한상화. “ACTS신학과 조직신학의 과제”**
	논평	**정성국. “논평: ACTS신학과 조직신학의 과제”**
제 13 차 ACTS 신학포럼 (2022. 10. 27) *현장 및 온라인 동시 개최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목회의 방향	
	논문	**정현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의 방향”**
	논문	**신성욱. “Post–Covid 시대 강단의 변화를 위한 전략: ‘귀납적 방향’을 중심으로”**
제 14 차 ACTS 신학포럼 (2023. 04. 17) *현장 및 온라인 동시 개최	주제 : ACTS신학과 생태환경	
	논문	**이한영. “창조 내러티브(1:1–2:3)의 신학적 의미”**
	논문	**이창준. “Genesis in the eyes of a brain scientist”**
제 15 차 ACTS 신학포럼 (2023. 10. 26) *현장 및 온라인 동시 개최	주제 : ACTS신학과 로잔운동	
	논문	**최성은. “복음주의 운동으로서의 로잔운동과 ACTS 신학 그리고 연관성”**

제 16 차 ACTS 신학포럼 (2024. 04,30~. 05.02) *현장 및 온라인 동시 개최	주제 : ACTS의 초기 인물과 신학적 유산	
	논문	임희국. ACTS의 초기 인물과 신학적 유산, 한경직
	논문	김승곤, ACTS의 초기 인물과 신학적 유산, 마삼락
	논문	손봉호, 신앙과 선교를 위한 신학자, 학성 한철하

제 17 차 ACTS 신학포럼 (2024. 10. 14) *현장 및 온라인 동시 개최	주제 : ACTS 신학과 로잔운동 – 제 4차 로잔대회를 다녀와서	
	논문	이명석, “ 로잔 운동의 역사와 이해” 대담 : 허 주, 이명석, 정성국, 이한영

2024년 신학연구위원 소개

허주 연구위원 (juhur@acts.ac.kr) 소장

아신대학교 신약신학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B.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Sheffield University (Ph.D.)

안경승 연구위원 (kshalom@acts.ac.kr)

아신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B.A.)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Ph.D.)

조휘 연구위원 (hcho@acts.ac.kr)

아신대학교 구약신학 교수

총신대학교 (B.A.)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M.Div.)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P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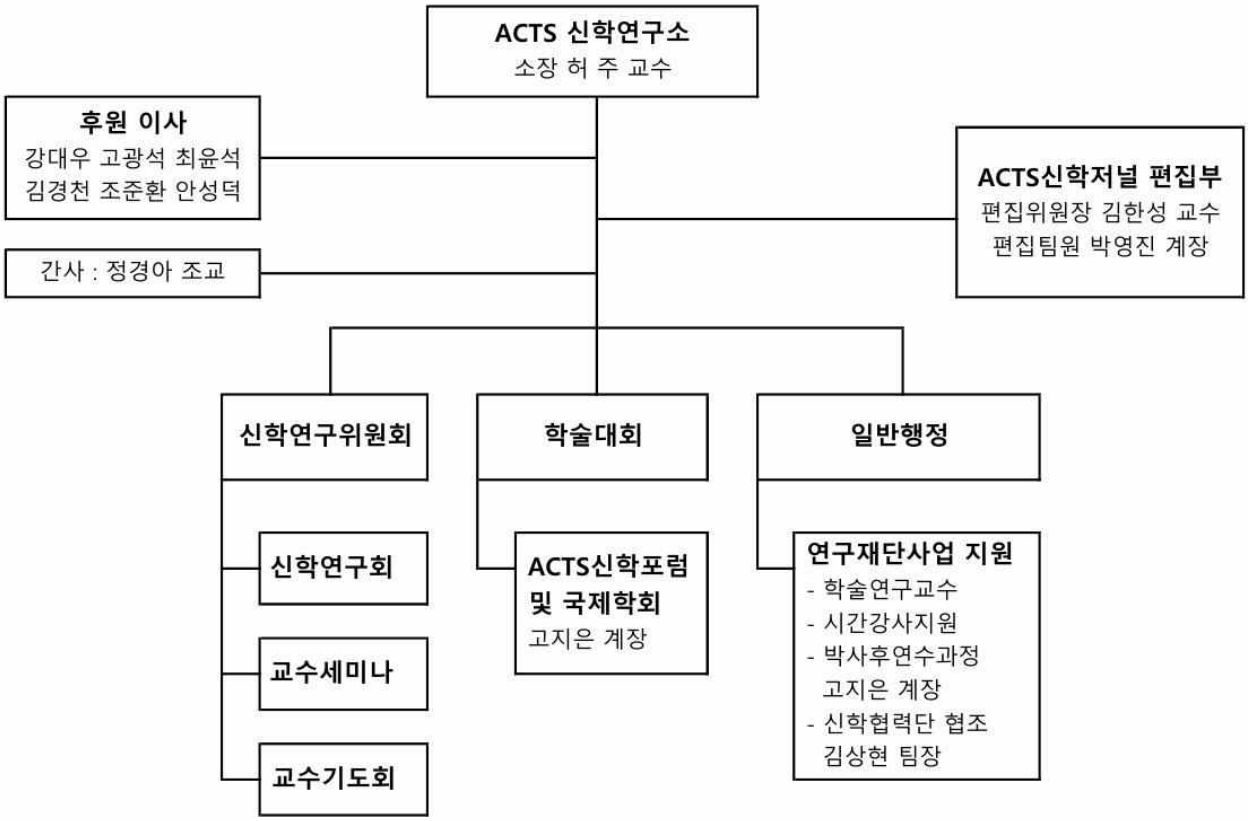
전희준 연구위원 (jonathanedwards@acts.ac.kr)

아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서강대학교(B.A.)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Div.)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Th.M.)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Ph.D.)

김한성 연구위원 (easy05@acts.ac.kr)

아신대학교 선교학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B.A.)
Prairie Graduate School(PBC) (M.A)
Biola University (D.Miss.)

ACTS 신학연구소 조직도